[UCI]I804:24011-200000263784

2013년 2월
교육학석사(특수교육)학위논문

정신지체학생 음악교육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김 수 려

정신지체학생 음악교육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 on Music Education for Student with Mental Retardation in Korea

2013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김 수 려

정신지체학생 음악교육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

지도교수 정 은 희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특수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김 수 려

김수려의 교육학 석사(특수교육)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정연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허유성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정은희 (인)

2012년 11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표목차 ····· iii
ABSTRACT ····· iv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 3
3. 용어의 정의 ····· 4

Ⅱ. 이론적 배경 ····· 5
1. 정신지체의 정의와 특성 ····· 5
2. 음악과 교육과정 ····· 8
3. 정신지체학생의 음악교육 ····· 11

Ⅲ. 연구방법 ····· 18
1. 분석대상 논문의 선정 및 검색 ····· 18
2. 문헌분석을 위한 분석틀 ····· 20
3. 신뢰도 및 자료처리 ····· 24

Ⅳ. 연구 결과 ····· 25
1. 연구주제별 연구동향 ····· 25
2. 연구방법별 연구동향 ····· 26
3. 교육과정 영역별 연구동향 ····· 27
4. 종속변인별 연구동향 ····· 28
5. 연구대상별 연구동향 ····· 29

Ⅴ. 논의 ····· 31
1. 연구주제별 연구동향 ····· 31
2. 연구방법별 연구동향 ····· 32

3. 교육과정 영역별 연구동향 ····· 33
4. 종속변인별 연구동향 ····· 35
5. 연구대상별 연구동향 ····· 36

Ⅵ. 결론 및 제언 ····· 37
1. 결론 ····· 37
2.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 ····· 38

참고문헌 ····· 39
부 록 ····· 43

표 목 차

<표 Ⅲ-1> 분석 대상 논문 ····· 19
<표 Ⅲ-2> 연도별 논문 발표 현황 ····· 20
<표 Ⅲ-3> 연구주제별 연구내용 ····· 21
<표 Ⅲ-4> 교육과정 영역별 연구내용 ····· 22
<표 Ⅲ-5> 종속변인별 연구내용 ····· 23
<표 Ⅳ-1> 연도별·주제별 연구동향 ····· 25
<표 Ⅳ-2> 연도별·연구방법별 연구동향 ····· 27
<표 Ⅳ-3> 연도별·교육과정 영역별 연구동향 ····· 28
<표 Ⅳ-4> 연도별·종속변인별 연구동향 ····· 29
<표 Ⅳ-5> 연도별·연구대상별 연구동향 ····· 30

ABSTRACT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 on Music Education for student with Mental Retardation in Korea

by Kim Su-Ryeo
Advisor : Eunhee Jeong, Ph.D
Major in Speci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demanding of music education for mentally challenged children have been recently increased to cultivate emotion, to develop social force and to routinize music. There fore this research analyzed topics, methods,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and the trend of an object of research, according to the 105 theses concerned with a musical education for a mentally challenged children which are reported in master's theses from 2002 to 2012 in korea. Also this research was to explore implications about a musical education of a mentally challenged children for the future.

The conclusion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

First, the subject about social adaption was the largest number of topics, followed by the cognition, psychology, course of study, teaching method and communication. Also physical study was covered.

Second, we examined the trend of methods of studies. As a result, an experimental study took more than half of all on research. this stands for there are many researches looking for the arbitrate effects of musical programme for mentally challenged children.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urriculum areas of the experimental studies, the researches of curriculum areas which regard singing, performance, impression and appreciating to a multiple activity were more then half. Unfortunately, there was no research for the

creative activities from 2002. This result suggest that the experimental study should be more concrete and various for the musical education to syntagmatically include singing, performance, creative activity in educational arena.

Fourth, many dependent variable studies ware about social adaptation. this means a high correlation between the musical education and the betterment of a social force.

Finally, the objects of the studies are nearly half comprised of schoolchildren. This reflects an expectation that a musical program can change people and particularly schoolchildren.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음악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음악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창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생활에서 음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최근에는 음악이 단순히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활동을 떠나 우리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기 때문에 폭넓은 음악적 경험을 강조하고 있다(김희규 외, 2011). 또한 일상생활의 일부로서 음악을 경험하게 해야 한다는 많은 학자들의 이론에 따라 태어나기 전부터 태교음악을 접하게 되며 또한 하나의 문화로 인정받아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과도, 연령이 다른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에도 통하지 않는 언어의 장벽을 소통시켜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듯 음악은 인간에게서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음악이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치료나 교육의 매개로 사용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데, 김지은(2006)과 김재숙(2006), 이미선(2008)에 의하면 자아개념, 사회·정서발달, 주의집중력에 대한 음악치료를 연구하여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최지현(2008) 또한 정신지체학생을 위한 음악 교육 연구를 통하여 정신지체학생의 교수전략을 발표하였다.

이는 음악을 통해 공동체적 의식을 함양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사회화를 촉진시키고, 정서적 안정과 언어 발달, 문제행동의 감소, 성취감과 자존감의 제고, 참여와 협력의 유도 등 전반적 발달에 기여할 수 있다는(교육과학기술부, 2011) 점을 밝혀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현행 특수학교 음악과 기본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악곡과 활동을 통하여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며, 음악의 표현·감상·이해 능력을 기르고, 음악을 생활화함으로써 즐거운 생활을 하는 태도를 기르게 하며, 음악 활동을 통해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인지적 발달을 촉진시킨다.”(교육과학기술부, 2011)는 목표를 설정하

고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음악을 의미 있게 즐기고 활용하려면, 음악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갖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음악에 대한 친근감을 바탕으로 생활 속에서 음악의 역할을 바르게 인식하고 다양한 음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해야 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한편 초·중등학교의 공통 교육과정에서는 “음악교육의 목적은 다양한 악곡과 활동을 통하여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며, 음악의 표현·감상·이해 능력을 기르고, 음악을 생활화함으로써 즐거운 생활을 하는 태도를 기르게 하며, 음악 활동을 통해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인지적 발달을 촉진시킨다(교육과학기술부, 2011)는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풍부한 음악적 감수성과 바람직한 가치관을 길러 음악을 생활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음악교육의 목표는 일반학교나 특수학교 모두 인지적인 면이나 지적인 능력보다 정서적인 면에서나 창의성, 미적 수용력, 감수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신지체 학생을 대상으로 음악의 효과성을 보고한 연구들을 보면, 김관일(1991)은 음악교육은 인지적 능력보다는 정신적 능력에 의존하는 내용이므로 비장애인의 교육 프로그램보다는 정신지체학생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높은 비중을 두며 전 교과에 다양하게 활동 분야를 넓혀갈 수 있는 유리한 과목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고하나(2009)는 음악은 정신지체학생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의사소통의 표현으로써, 다른 활동들의 대용물로써, 감각 발달의 대행으로써, 보답과 성취를 가져오는 보상으로써, 감정표현 수단과 감정발산으로써, 그리고 사회화의 수단으로써 이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측면들은 음악이란 요소가 통합하는 힘을 가지고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될 수 없으며 마음과 육체, 감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음악이 정신지체학생에게 효과적인 다른 예로는 정신지체학생들이 음악시간에 즐거워하며 성공적인 성취경험을 하게 됨을 들 수 있다. 비록 발음상의 문제로 인해 모든 가사를 따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익숙한 멜로디가 나오면 몸을 흔들거나 가끔 소리를 내어 또래들과 함께 부분적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다. 또한 악기연주 시에는 두드리거나 흔들면 쉽게 소리가 나는 타악기를 사용함으로 정신

지체학생이 또래들과 함께 연주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음악교육은 통합교육기관에서 정신지체학생의 참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지도방법이 될 수 있다(장혜성 외, 2007).

이상과 같이 정신지체학생들의 다양한 특성에 따른 음악중재의 적용 효과가 지속적으로 검증되고 있다. 하지만 정신지체학생의 정서함양과 사회성 발달, 음악의 생활화를 위한 음악교육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정신지체학생 음악교육 관련 국내 연구의 동향을 점검해보고 추후 연구가 필요한 주제와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정신지체학생 음악교육 문헌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신지체학생 음악교육에 관한 문헌연구는 최근 10년 동안 수행되지 않았고, 장애유아를 대상으로 한 원종례와 주용수(2008)와, 특수교육 음악치료를 연구한 박소연(2012)의 연구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원종례와 주용수의 연구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실험연구를 분석한 것으로 문헌연구나 조사연구 등을 포함하지 않아, 다양한 형태의 음악교육 동향을 살펴보는데 제한점이 있다. 또한 연구대상을 5세 이하인 장애유아로 제한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리고 박소연(2012)은 학위논문을 제외한 전문 학술지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점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 국내 학술지와 학위논문 중 정신지체학생의 음악교육 관련 연구를 연구주제, 연구방법, 교육과정 영역별, 종속변인, 연구대상별 연구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정신지체학생 음악교육 연구를 위한 방향 설정에 기초가 되며, 정신지체학생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교수방법을 구안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연구문제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가지고 수행되었다.

첫째, 최근 10년간 정신지체학생 음악교육 관련 연구의 연구주제의 동향은 어떠

한가?

둘째, 최근 10년간 정신지체학생 음악교육 관련 연구의 연구방법의 동향은 어떠한가?

셋째, 최근 10년간 정신지체학생 음악교육 관련 연구의 교육과정 영역별 동향은 어떠한가?

넷째, 최근 10년간 정신지체학생 음악교육 관련 연구의 종속변인의 동향은 어떠한가?

다섯째, 최근 10년간 정신지체학생 음악교육 관련 연구의 연구대상의 동향은 어떠한가?

3. 용어의 정의

1) 정신지체

과거에는 정신지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지적인 기능에 결함을 갖는 비교적 변화 가능한 상태를 뜻하는 지적장애라는 용어도 함께 사용되고 있다. 즉, 훈련과 교육을 통하여 제 기능을 획득가능하다고 보는 기능주의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정신지체협회(AAMR)는 2007년부터 학회의 이름을 미국지적·발달장애학회(American Association on the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AAIDD)로 개명하고, 정신지체 대신 지적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지적장애라는 용어는 각각의 단체나 법에 따라서 그 정의가 다르며, 아직 정신지체로 정의되어 사용되어 지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사용하는 정신지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단, 분석대상 논문은 '정신지체'와 '지적장애'를 모두 대상으로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정신지체의 정의와 특성

1) 정의

정신지체학생에 대한 관심은 사회학, 의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학 등 여러 전문분야에서 있어 왔고, 이들의 관점에 따라 혹은 시대에 따라 정신지체아의 정의나 분류는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초기에는 교육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시사하는 병인론으로 보았고, 과도기에는 '전반적인 지적 기능이 정상이하이며, 적응행동의 손상과 관련된 것' 이라 하였으며, 발달기를 0~16세로 정하였다가, 이후에 발달기를 0~18세로 확대하였다. 초기와는 다르게 지적장애를 치료 가능한 상태로 보았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현용혁, 2008)

최근의 정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살고 있는 환경 등이 장애를 더 부추긴다는 사회병리론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이는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의 틀이 바뀌고 있는 것인데, AAIDD(2010)의 정의에 따르면 정신지체란 '지적 기능성과 개념적 · 사회적 · 실제적 적응기술로 표현되는 적응행동영역에서 유의하게 제한성을 보이는 것이며 , 이 장애는 18세 이전에 시작된다.'고 하였다. 2010년 11차 개정 정의체계에서는 이제까지 사용하였던 정신지체라는 용어 대신에 지적장애라는 용어를 채택하여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역사적으로 한 개인이 장애가 있다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관점이 변화되어 왔고, 이러한 관점이 보다 명확하게 정의에 반영될 필요가 있었다. '정신지체'라는 용어에는 개인의 내적 조건에 의해 기능이 제한된 상태가 장애라는 관점이 내포되어 있지만, '지적장애'라는 용어에는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잠재력과 맥락이 잘 맞지 않아 생기는 기능 상태가 '장애'라는 관점이 내포되어 있다. 둘째, 지적장애인을 명명할 수 있는 좀 더 적절한 새로운 용어의

출현이 요구되었다. 역사적으로 지적장애인들은 바보, 천치, 박약, 얼간이와 같은 말로 명명되었고, 정신박약이나 정신결함이란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용어들이 장애 특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긍정적 이미지를 제공하지 못하고,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그 개인을 낙인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을 비판하며, 정신지체라는 용어를 최근까지 사용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더 이상 '정신지체'라는 용어로는 존엄성과 존중을 담고 소통할 수 없게 되었고, '정신지체'라는 용어조차 그 개인을 가치절하하고 낙인 하는 효과를 갖게 되어, 그들을 명명할 수 있는 새로운 용어가 필요하게 되었다(송준만 외, 2012).

이와 같이 AAIDD(2010) 정의에서는 정신지체가 지적장애로 용어가 변경되었고, 실제로 생활하는 환경(즉, 학교, 가정, 지역사회, 직업)에서 그 기능을 향상 시키는데 필요한 지원의 강도에 따라서 분류 하고자 하였다. 이 체계는 정신지체에 지적인 결함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결함의 정도는 개인의 사회적 환경과 맥락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관점을 반영하며, 사회적 맥락에서 생물학적 요인을 생각하는 것이다(박재국 외, 2006).

이는 초기의 인간병리이론을 생태학적 이론으로 대체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1992년 정의에 비해 구체화 되고 심화되었다(김원경 외, 2008). 결국 정신지체아란 '발달기에 있어 개념적, 사회적, 실질적 적응 기술이 또래의 지역사회에서 현저한 제한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2) 특성

정신지체학생의 전형적인 일반적 행동특성은 크게 지적특성, 운동기능이나 감각·지각특성, 사회적 및 정서 특성, 학업적 특성으로 나눌 수 있다.

정신지체학생의 가장 큰 특징은 지적발달의 장애이다. 정신지체 학생은 주의집중력(지속시간, 초점 및 범위, 선택적 주의집중)에 어려움을 지니고, 관찰이나 모방을 통하여 배우는 모방학습이나 우연학습의 능력이 부족하며, 동일한 내용을 다양한 상활에 적용하는 일반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학업성취도가 낮은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인지능력과 언어 간의 상호적 교류와 밀접한 연결 고리는

오랫동안 지적되고 주목되어 왔다. 언어발달과 지적 기능과의 관계는 표현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말을 배우는 시기나 문자를 익히는 발달 정도에서 정신지체의 조기진단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들은 언어 발달이 지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화 및 추상화에 작용하는 표상언어가 발달하지 않는다. 또한 통찰력이 부족하여 놀이나 작업에서도 사물의 대소, 형태, 기능 등에 무관심하여 비합리적인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가 많다(권요한 외, 2010; 갈향임, 2007).

한편, 정신지체 학생의 정신적 기능과 신체 모든 기관이 운동기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경우 신체의 각 부위의 형태나 그 기능면에서도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신생아에게 나타나야 하는 반사운동이 시간이 경과해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나 아주 미약한 경우가 있다. 앉기, 서기, 보행, 손가락 사용 등의 기능이 지체되며 민첩성도 결핍된 경우가 많다. 또, 아픈 감각을 상실했거나 미각이나 후각의 도착된 감각과 같은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김현주, 2002).

또한 지적 기능의 장애는 정서나 사회성에도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일에만 집착하고,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 또한 새로운 경험을 획득하려는 욕구가 결여되어 있고, 새로운 경험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적다. 따라서 적당한 자극이 없는 경우는 주위에 일어나는 일에 무관심하게 되며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일정한 욕구수준을 설정하여 노력한다든가 자기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욕이 부족하며 비난이나 질책을 받을 경우에는 곧 정서가 불안하여 경솔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자기 통제나 자율심이 약하며 사회의 규칙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정신이 희박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적응성이 결핍되는 경우가 많다(안혜경, 2003).

학업에 관련된 면에서 정신지체학생에게는 대부분의 학습과정에 요구되는 모든 능력의 제약이 따른다. 어떤 일을 해도 의도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충분히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이해하여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신지체학생은 학습전략을 습득하거나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로 인해 우연

학습 기능이 열등하며, 동일한 연령의 정상아동들보다 충동적인 경향이 있어 정확하게 문제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학습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김남순, 2005). 물론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돈을 계산하거나 학교에 가는 길, 교통수단의 이용 등과 같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우연한 기회에 학습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이외의 상위 개념의 산수, 단어, 과학 등의 추상화나 일반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학습은 곤란하다(갈향임, 2007; 김현주, 2002).

2. 음악과 교육과정

공통교육과정의 음악과 교육과정은 “음악과 교육은 학생의 음악적 잠재력과 창의성을 계발하고, 음악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도록 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 전인적인 인간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그러나 공통교육과정의 음악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의 기본교육과정의 총괄목표는 ‘다양한 악곡과 활동을 통하여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며, 음악의 표현·감상·이해 능력을 기르고, 음악을 생활화함으로써 즐거운 생활을 하는 태도를 기르게 하며, 음악 활동을 통해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인지적 발달을 촉진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음악을 생활화하려면 음악에 대한 친근감을 바탕으로 음악의 역할을 바르게 인식하고 다양한 음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창의성을 계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음악적 창의성은 음악 분야의 관습, 지식 체계, 기능 체계의 범주 안에서 독창적인 사고와 행동을 통해 생산물을 산출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음악 활동을 통하여 생각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창의성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기본교육과정의 음악과 교육과정의 하위 목표는 ‘교육과학기술부 2009년도 특수교육 교육과정 해설 별책2: 기본 교육과정’ 내용을 요약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 소리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음악

학습 활동의 시작은 소리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학습에 대한 욕구가 있으며 배우려는 능동적 행동을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선택적으로 학습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수 교육 대상 학생들은 장애 특성에 따라 주의력이 짧고 학습에 대한 의욕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에게 소리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여야 하며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음악의 요소를 이해하고, 올바른 감상 태도와 능력을 기른다. 음악을 구성하는 요소는 리듬, 가락, 화성, 형식, 빠르기, 셈여림, 음색 등이 있다. 음악 요소는 음악을 형성하는 기본 골격이 되므로 이러한 음악 요소들을 잘 이해할 때 비로소 단순한 소리가 아닌 아름다운 음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올바른 감상 태도와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음악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음악의 요소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음악과 수업을 통하여 직접 지휘를 해 보거나 몸을 흔들어 보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시대와 형식을 가리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경험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다양한 음악 활동에서 경험한 것을 실제 생활에서 활용한다. 음악 활동은 음악의 본질 및 구성 요소에 대하여 이해를 하고 다양한 음악 활동을 경험하며 실제 생활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음악 활동은 음악 듣기,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음악 만들기 등이 있다. 음악 활동을 위해서는 음악의 본질 및 구성 요소의 이해와 활용하는 기능의 습득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음악의 요소 이해 및 기능 습득을 토대로 다양한 음악 활동과 실제 생활에서의 활용 중심으로 음악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음악 활동을 통해 아름다움을 느끼고 자신의 생각을 노래로 부르기나 음악 만들기 등으로 표현함으로써 정서적인 측면의 발달과 지적인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 함께 노래 부르기, 합주하기 등을 통하여 자신감과 사회성, 협동심 등을 기를 수 있는 음악 교육이 되어야 한다.

넷째, 전통 음악에 대한 이해를 높여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기른다.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은 조상의 숨결이 담겨있으며, 민족의 정신이 흐르고 있다. 우리

의 전통 음악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고 올바르게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보람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화, 다양화를 추구하며 살고 있는 동안 우리의 전통 음악에 대한 가치를 소홀히 할 수 있다. 이러한 때에 전통 음악에 대한 이해를 높여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기르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다. 따라서 우리의 전통 음악을 알기 쉽게 이해하고, 흥겨운 가락을 즐기거나 다른 나라의 음악과 비교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습함으로써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기를 수 있다.

이와 같이 특수학교 음악과의 하위 목표에서 음악 요소의 이해를 음악교육의 시작으로 여기는 것은 음악을 형성하는 기본 골격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러한 음악 요소들을 잘 이해할 때에 비소로 단순한 소리가 아닌 아름다운 노래를 들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음악 활동도 올바르게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음악 수업에서 음악 요소들 간의 원칙들을 잘 지키면 아름다운 선율로 인해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바람직한 학습 환경이 이루어지며, 학생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것으로 점차 변화시켜 가는 과정을 통해 음악에 더욱 흥미를 갖고 음악교육에 참여하게 되거나 음악을 가까이 느끼면서 즐길 수 있게 됨을 강조하였다.

또한 최근 '교육과학기술부 2011년도 특수교육 교육과정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을 요약 기술하고자 한다.

현행 기본 교육과정의 음악과 목표는 활동, 이해, 생활화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활동' 영역은 이해, 생활화 영역과는 달리 가창, 연주, 창작, 감상의 4개 소 영역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또한 각 영역은 독립적인 활동이 아니라 상호 관련성 있게 조직되어 있다. 교과서는 현행 1단계, 2단계, 3단계로 되어 있는 3단계의 교육내용을 초등학교 1-2학년, 초등학교 3-4학년,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의 5개 학년 군으로 확장함에 따라 현행 교육과정에서 계열성이 필요한 내용들은 위계적으로 재배열하였으며, '생활화' 영역을 새롭게 구성하여 영역과 냉용의 수준을 보완하고 확장하였다.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활동' 영역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창, 연주, 창작, 감상의 4개의 소 영역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가창’의 활동 내용은 노래 듣고 따라 부르기, 무리 없는 발성으로 노래 부르기, 정확한 발음과 아름다운 발성으로 노래 부르기의 내용으로 연력의 변화에 따른 발성을 고려하여 계열성 있게 내용을 구성하였다.

‘연주’의 활동 내용은 신체와 주변의 물건을 이용하여 연주하기, 리듬 악기, 가락 악기의 연주하기를 통해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고 합주할 수 있도록 내용을 체계화하여 구성하였다.

‘창작’의 활동 내용은 주변의 물건으로 자연과 생활의 소리 만들기, 2박자와 4박자의 리듬과 2음을 이용한 즉흥가락 만들기, 4박자, 3박자, 반복 형태의 리듬을 이용하여 3음, 5음, 7음의 가락을 창작하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감상’의 활동 내용은 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반응하기, 소리를 탐색하여 음악의 분위기 느끼기, 악기의 음색 탐색하기, 이야기나 주제가 있는 음악을 감상하기, 악곡의 특징을 파악하여 감상하기로 구성하였다.

‘이해’ 영역은 현행 교육과정의 지각활동 내용을 보완하여 음악의 기본적인 구성요소인 리듬, 가락, 빠르기, 셈여림, 음색, 형식, 화음이 모두 포함된 영역으로 확대하여 구성하였다. 이해영역의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 강조점을 둔 것은 단지 음악요소를 지각하기에 그치는 것이 아닌 가창, 연주, 창작, 감상의 활동 영역과 통합을 이루어 음악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의 개념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생활화’ 영역의 내용은 생활 속에서 음악을 경험하기, 생활 속에서 음악을 즐기는 태도 기르기, 생활 속에서 음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 기르기, 생활 속에서 음악을 활용하는 능력 기르기, 음악의 쓰임새를 알고 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태도기르기이다. 이들 태도와 기능을 통하여 학교에서 배우는 음악을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3. 정신지체학생의 음악교육

가. 정신지체 학생의 음악교육 필요성

정신지체아동의 교육 분야에서 음악교육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음악이 음악 본래의 음악적 가치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비음악적인 역할로서의 필요성과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허명임, 2001).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음악은 비언어적 대화로 수업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장애와 함께 지적장애를 동반한 지적장애 학생들에게는 비교적 부담이 적을 수 있다. 악기나 신체 등을 통해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교사나 친구들에게 표현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음악적 대화를 통해 대화의 결핍으로 얻을 수 없는 만족감과 사회적 소속감을 느끼게 해준다.

음악이 정신지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술할 수 있다.

첫째, 정서 순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윤명노(2005)와 최은혜(2009)가 언급하였듯 음악은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표현 활동이나 감상 활동을 통하여 아름다움을 느끼는 미적 경험을 제공하고 아울러 학생들이 가지는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 시켜줌으로써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다른 학습 교화를 높이고 타 교과에 분위기 조성을 해주며 참여도가 낮은 학생들에게도 큰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킨다(현은경, 2000).

셋째, 스트레스 해소와 협동심, 희망, 표현력, 잠재력 개발, 치료적인 면에서도 도움이 된다(현은경, 2000).

넷째, 가창을 통한 언어지도, 발성 지도를 통한 바른 음성 갖기, 가창으로 인한 호흡 훈련 및 자신감 찾기, 악기를 연주함으로써 자기표현 능력 향상, 합주를 통한 협동심 고취와 음악을 듣는 변별력도 생기며 자기표현과 리듬감을 살릴 수 있는 음악적인 면이 있다. 이와 같이 지적장애 학생들에게 음악교육은 정서적 발달뿐만 아니라 인지적 발달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현은경, 2000; 최은혜, 2009).

이러한 목적 뿐 아니라 장애아들은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는 활동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목표가 성취될 수 있다고 진술했다.

첫째, 의사소통기술의 향상이다. 의사소통이란 타인의 감정을 수용하고 또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는 과정을 의미하여 한 집단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다. 왜냐하면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말하는 사람에게 집중하여 얼굴 표정이나 입 모양의 움직임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음악은 매력적인 소리 자극을 제공함으로 눈 마주침을 증가시키고 격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아들은 언어표현에 어려움을 보일 수 있지만 좋아하는 음악이 나오면 몸을 흔드는 등의 비언어적인 표현을 통해 자신의 느낌을 전달할 수 있다. 특히 가창을 통하여 언어발달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현용혁, 2008)

둘째, 학업기술의 향상이다. 장애아들은 통합 환경에서 자신의 장애로 인해 학습에서 배제되고 기회마저 박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음악은 장애아들이 자신의 장애와 상관없이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악기활동에서 자신이 연주할 순서를 알고 서로의 음악적인 반응을 기다리는 동안 순서를 지키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칼라벨 연주에서 자신의 연주 부분이 아닐 때는 멈추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장혜성 외, 2007).

셋째, 운동기술의 향상이다. 일반아동과 장애아동 모두에게 신체적인 발달은 매우 중요하다. 일반아동은 보통 환경적인 탐색을 통해 자아가 성장되며 여러 가지 기술습득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장애아동은 행동반경의 제한으로 인해 주변을 적극적으로 탐색할 기회가 제한되고 이로 인해 다양한 기술 습득도 지체가 될 수도 있다. 이때 음악은 청각적 자극을 통해 움직임을 촉진하여 대·소근육 발달을 도와줄 수 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운동영역에서 발달의 기회를 갖게 되며 이는 일상생활로 자연스럽게 전이될 수 있다. 또한 계속적으로 연습을 하면 기본 운동기술에 뚜렷한 진보가 있게 된다. 특히 많은 사고를 요하지 않는 과제라면 정신지체학생도 정상에 따라 갈 수 있게 된다(권현진, 2008).

넷째, 정서기술의 향상이다. 정서란 자신의 감정을 잘 인식하고 표현하며 타인의 감정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장애아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는 것에 서툰 경우가 많다. 음악은 특히 정서적인 영역에서 매우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즐겁고 익숙한 음악은 장애아에게는 만족감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며 일반아동에게는 긍정적인 기분을 유발하여 그룹

활동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장애아동을 도울 수 있게 한다.

또한 음악은 부정적인 정서 즉 불안이나 우울 등의 감정을 감소시키는데도 도움이 된다. 음악을 들으며 깊게 숨을 쉬고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불안을 동반한 불유쾌한 감정을 경감시키는 데 매우 유용하다. 활동적인 것에서부터 매우 정적인 분위기까지의 음악 감상 역시 불안에 대한 신체적 감각을 이완시켜주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본질적으로 음악의 심리적, 사회적기능이 정서발달의 하위영역 즉, 비 의존성, 내적 통제, 또래와의 상초작용, 안정감, 성취동기, 호기심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유자운, 2005).

다섯째, 조직화기술의 향상이다. 조직화기술이란 사물이 일정한 질서를 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때, 음악은 구조 안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조직화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것은 음악교육 장소로 이동하는 것,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참여하는 것, 음악적 신호에 반응하는 것등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악기를 동일한 장소에 놓거나 그룹 안에서 원형을 유지하는 것 등이 환경에 대한 조직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장혜성 외, 2007).

여섯째, 사회성기술의 향상이다. 사회성기술 습득에서 음악은 서로 교류하는 기회를 갖게 해 준다. 예를 들어, 음악교육에서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이 손을 잡고 율동을 하거나 같은 악기를 가지고 함께 연주하는 경험들은 일반아동, 장애아동 모두에게 상호교류하는 기회를 갖게 함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협동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음악기술의 개별적 발달도 이끌어 낼 수 있다. 익숙한 노래를 함께 부르고 동일한 율동을 따라 함으로 장애아동은 자연스럽게 일반아동을 모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일반아동은 장애아동의 모델이 되면서 서로 협동심과 소속감도 느끼게 된다. 라순자(2004)의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음악집단에 참여하고 싶어 하고 집단에 남아 있기 위하여 부적절한 행동을 수정할 뿐나 아니라 음악을 만드는 것을 즐기기 때문에 대부분의 음악활동 회기 동안 협력하는 등의 긍정적인 행동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학생은 음악활동에서 서로의 행동을 모방하고 반복되는 활동에 참여하면서 그 속에서 차례를 따르고 집

단의 결정을 따를 수 있게 된다. 이때 학생의 행동은 좀 더 자발적이고 적극적이게 된다. 이처럼 음악은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는 새로운 사회적인 행동을 경험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일곱째, 음악을 생활화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신지체학생들은 음악치료 집단 밖에서 행해지는 사회적인 음악활동을 통해 사회에 동참하는 기회를 넓히며 이것은 결국 자긍심과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레크리에이션 치료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들을 원용할 수 있겠다(유은정, 2003)

나. 정신지체 학생의 음악교육 지도 방법

정신지체 학생을 위한 음악교육 내용 및 지도 방법은 그들의 정신적, 신체적, 정서적 상태와 환경적인 배경을 잘 알고, 지도 원리와 음악적 특성을 바탕으로 계획되어져야 하며, 정신지체아의 학습 원리인 구체성, 반복성, 흥미성, 실제성, 단순성, 감각성의 원리가 강조되고 시작, 청각, 음성, 근육활동, 촉각 등의 감각을 통한 학습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김정수, 2001).

정신지체 학생의 음악교육은 가창, 기악, 창작, 감상 영역, 리듬치기 등이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즉 아동들이 즐겁게 부르는 노래를 리듬연주 시간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기도 하며, 감상 시간에 리듬 치기도 하는 등 음악활동이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유기적,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가창

노래 부르기는 자발적인 음악적 표현의 첫 번째 형태이다. 노래 부르기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식과 의사소통의 수단이 될 수 있고, 언어 자극을 유도할 수 있다. 가사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단계에서 감각적, 정서적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혹은 발음 할 수 없는 낱말의 발성을 통해 만족스러운 의사소통의 경험도 할 수 있다. 또 반복되는 가사로 이루어진 노래에서는 기억을 발달시킨다(김상미, 1995).

노래 부르기는 일반적으로 제창과 독창의 단선율 노래가 좋으며, 노래 부를 때 타악기를 이용하거나 손뼉치기, 책상 두드리기 등을 하면서 노래 부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지도 방법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방법보다는 생활에 노래가 스며들도록 하면서 자발적인 모방을 통해 학습하는 것도 효과적이다(류효경, 2007).

2) 기악

현실적으로 다양한 악기의 선택은 어렵고, 주로 간단한 리듬악기를 위주로 단순한 리듬연주나 리듬 합주활동이 중심이 될 것이나 학생에 따라서는 비교적 숙련된 기능이 요구되는 가락악기의 지도가 가능할 수 있다(류효경, 2007). 또한 정신지체 학생들에게 악기연주는 대 소근육의 기술 발달 및 의사소통기술 발달에 도움이 되며 모방을 격려하고 창조성과 자기표현 향상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악기를 선택하고 연주함으로 성취감을 느끼게 된다(장혜성외, 2007).

지도 방법에 있어서 처음부터 완벽한 연주와 정확한 연주 기법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고, 또한 같은 내용을 오랜 시간 지도하면서 완벽한 결과를 얻으려 하기 보다는 다른 활동과 통합하여 기악연주 시간은 짧지만 여러 차례 반복한 학습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류효경, 2007).

3) 창작

창작은 단지 교과에 국한하여 학습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학습되는 개념이다. 재미있게 보는 애니메이션에서 독창적 효과음이 없다면 그 작품의 흥미와 예술적 감동이 없는 것처럼, 음악적 창작은 우리생활에 필수요소가 되어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든다(김희규 외, 2011).

정신지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창작지도의 내용은 모방표현의 수준에서 크게 발전할 수는 없다. 따라서 여러 가지 소리를 내어 보거나 동물의 특징, 울음소리를 흉내내는 등의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흥미 있는 활동을 전개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는 기습곡의 변화 있고 개성 있는 표현, 악곡의 특징을

살진 표현의 지도도 가능할 것이다(류효경, 2007).

4) 감상

음악감상은 일반아동뿐 아니라 정신지체학생에게도 선호도가 가장 낮은 활동이므로 교사들도 음악활동 시간에 음악감상을 많이 실시하지 않는다. 가만히 앉아서 음악을 들어야하는 수동적인 감상은 집중력이 짧고 활동량이 많은 장애아와 일반아 모두에게 쉽지 않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악을 들으면서 몸을 움직여 보거나 자신이 만든 소리 즉, 자신이 부른 노래나 악기연주를 녹음하여 다시 들어보는 것은 새로움과 흥미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장혜성 외, 2007).

효율적인 음악감상지도를 위한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해 수준에 알맞은 감상곡 선택이 필요하다.

둘째, 간단명료하게 해설해야한다.

셋째, 개성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넷째, 주제를 반드시 익히게 한다.

다섯째, 곡이 쉬우며 짧은 곡을 먼저 들려주면서 본 곡과 비교하게 하여, 본곡의 리듬과 선율의 특징 및 분석 감상 등을 행하게 한다.

여섯째, 악곡을 들은 후에는 느낌을 반드시 표현하도록 한다.

일곱째, 기억의 정착을 위한 반복감상이 필요하다(김희규 외, 2011).

여덟째, 감상과 장르를 다양화하여 가곡, 건전 가요, 민요, 클래식, 팝송, 동요 등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아홉째, 현장의 음악 수업에서 사용하는 악기 종류도 피아노, 오르간 등의 제안된 것부터 다양한 종류의 악기 사용도 요구된다(류효경, 2007).

Ⅲ. 연구 방법

1. 분석대상 논문의 선정 및 검색

1) 문헌선정 기준

본 연구에서는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국내 학술지와 정신지체학생 음악교육과 관련된 석·박사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대상 논문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10년간인 2002년부터 2012년 올해까지 국내학술지 및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AAIDD의 정의에 따라 연구대상의 연령은 만18세 미만의 학생을 포함 하였다.

셋째, 학술지와 학위논문에 중복된 제목 및 동일저자에 대한 연구논문은 비교적 질적 수준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학술지의 논문을 분석하였으며, 중복된 학위논문은 제외시켰다.

넷째, 검색된 논문 중 정신지체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은 논문이나 다양한 장애 영역을 다룬 논문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문헌검색

분석 대상 논문의 검색 및 수집은 논문 전문 검색 사이트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www.riss4u.net),누리미디어(www.dbpia.co.kr),국회전자도서관(www.nanet.go.kr)에서 석·박사 학위논문과 학술진흥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학술지를 검색하였다. 문

헌 탐색을 위해 사용한 핵심어는 ‘음악’, ‘정신지체’, ‘지적장애’를 주제어로 기술한 논문을 수집하였다. 주제어 입력 시 동일한 용어의 띄어쓰기의 차이에 따라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하여 주제어의 띄어쓰기의 모든 경우를 검색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분석 대상 논문은 학위논문 240편, 학술지 57편이 검색되었으나, 중복 검색되거나 연구 대상이 성인이거나, 연구주제가 다른 논문을 제외한 나머지인 학위논문 91편, 학술지 14편으로 총 105편의 논문을 최종 선정하였다. 분석 논문 목록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분석 대상 논문 현황은 다음 <표 Ⅲ-1>과 같다.

<표 Ⅲ-1> 분석 대상 논문

구분	내용	논문 수	백분율
게재양식	석사학위논문	90	85.6
	박사학위논문	1	1.3
	학술지논문	14	13.1
합계		105	100

<표 Ⅲ-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105편의 논문 중 석사학위 논문이 90편(85.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박사학위 논문은 1편(1.3%), 학술지 논문은 14편(13.1%)이 발표되었다. 또한 연도별 발표 현황은 다음 <표 Ⅲ-2>와 같다.

<표 Ⅲ-2> 연도별 논문 발표 현황

연도	논문수	논문 종류			백분율(%)
		석사	박사	학술지	
2002	6	5		1	5.3
2003	6	5		1	9.2
2004	3	3			3.9
2005	5	4	1		9.2
2006	16	10		6	17.1
2007	10	9		1	9.2
2008	12	10		2	17.1
2009	13	11		2	10.6
2010	12	11		1	3.9
2011	14	14			9.2
2012	8	8			5.3
계	105	90	1	14	100

2. 문헌분석을 위한 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정신지체학생의 음악교육 관련 연구논문들에 있어서 연도에 따라 연구주제, 연구방법, 교육과정 영역별, 종속변인, 연구대상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주제

연구주제는 정신지체아 교육관련 선행연구(최충옥, 박희찬, 김진희, 2002; 여광응, 김나영, 추연구, 2003; 신진숙, 2012; 송준만 외 , 2012; 김정권, 여광응, 이상춘, 조인수, 2000)와 정신지체 정의를 근거로 하여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인지·심리, 언어·의사소통, 사회적응 및 정서, 신체적·건강, 학습, 치료·재활, 기타를 포함하여 총 8가지로 나누었다. 인지·심리에 관련해서는 지적장애아동의 인지특성 중 인지, 기억·주의력, 문제해결·의사결정 등 10가지로 분류되어 있지만 논문 분석 결과 포함

하지 않는 8가지를 제외한 인지와 기억·주의력으로만 분류하였다. <표 Ⅲ-3>는 각 연구주제에 포함된 내용들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 Ⅲ-3> 연구주제별 연구내용

연구주제	연구내용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교육내용과 지도방법
인지 · 심리	인지, 기억 · 주의력
언어 · 의사소통	언어능력, 언어유형, 의사소통기술
사회적응 및 사회정서	적응행동, 감정표현, 감정이해
신체·운동·건강	협응력, 체력 및 건강, 운동기술
학습	학습기술, 학습방략
치료 · 재활	음악치료
기타	복합

2)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성태제(2007)와 시기자·성태제(2011)가 제시한 6가지(문헌연구, 조사연구, 실험연구, 관찰연구, 문화기술적연구, 역사연구) 중에서 분석논문에 없는 문화기술적연구와 역사연구를 제외하였고 사례연구, 양적·질적 병행연구를 포함하였다.

실험연구는 단일대상연구와 집단실험연구로 나누었으며 기술연구는 사례연구, 조사연구, 기타연구로 범주화하였다.

3) 교육과정 영역

실험연구로 수행된 66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할 교육과정 영역별 분석기준은 기본 교육과정의 음악과 교육 하위목표 중 활동영역을 기초로 교육과정 영역별 주제를 분류하였다.

각 교육과정 영역 및 개별논문의 명칭은 <표 Ⅲ-4>에 제시하였다.

<표 Ⅲ-4> 교육과정 영역별 연구내용

교육과정영역		중재활동
활동	가창	음고·선율윤곽·발음·선율적 리듬, 노래방기기 활용, 노래, 가창지도, 가창 수업 모델, 동요노랫말 바꾸기, 생활관련 동요, ICT, 스타카토
	연주	사물놀이, 즉흥연주, 기악활동, 첼로연주, 자일로폰, 국악장단,
	창작	난타, 음악극
	감상	체험적 음악감상, 리듬자극, 동작그림카드,
	복합 (예: 가창, 연주, 창작, 감상 중 2개 이상의 활동이 포함하는 영역)	MMCP, 음악치료활동, 어쿠스틱·컴퓨터음악, 표현중심, 언어중재, 통합적 음악활동, 타악기 중심, 언어지도, 사물놀이 합주활동, 음악놀이, 달크로즈, 오르프, 리듬악기, 모듬북, 장구장단 치기,
	기타*	음악줄넘기, 댄스스포츠
이해	리듬, 가락, 화성, 빠르기, 셈여림, 형식, 음색의 범주	
생활화	생활 속에서 다양한 음악의 경험과 활용	

* 기타는 음악줄넘기, 댄스스포츠 등 위 기준에 포함될 수 없는 변인
교육과정영역에 관한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2011).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명시된 부분 발췌.

4) 종속변인

실험연구로 수행된 66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속변인의 분석기준은 송준만 외 (2012)의 지적장애아교육을 참고하여 인지, 언어, 사회적응, 운동기술, 학업성취, 기타로 구분하였다. 또한 실험연구에서 종속변인이 2개 이상인 경우 모두 표시하였기 때문에 전체 논문 수보다 종속변인의 수가 더 많이 분석되었다.

분석할 종속변인의 분석기준은 기본 교육과정의 음악과 교육 하위목표 중 활동영역을 기초로 종속변인 주제를 분류하였다. 각 종속변인의 영역 및 개별논문의 명칭은 <표 Ⅲ-5>에 제시하였다.

<표 Ⅲ-5> 종속변인별 연구내용

종속변인	내용
인지 및 학업 (기억, 주의력 포함)	주의집중력, 주의집중행동, 인지능력, 이해력, 눈 마주침, 개인적 독립, 인지발달, 자아개념(자아존중감), 객관적 추론, 위계적 분류, 논리적 추론, 유목화, 서열화, 선택적 주의집중력, 단기기억력, 가창능력, 음악기초개념, 음악성, 발표력, 모듬북 장단, 장구연구기능, 음악인지능력
언어	신체 표현능력, 표현력, 수용어휘능력, 개념습득, 상대어, 표현언어, 발음, 감정어휘,
사회·정서	감성지능, 사회적 기술, 사회성, 사회·정서, 스트레스, 문제행동, 사회정서행동, 자리이탈, 의지기술, 사회화, 협력행동, 자기주장, 자아통제, 공격적 행동, 위축·고립, 동작모방, 자아의식, 대인관계, 수업참여행동, 역할수용능력, 부적응행동, 학교생활 적응도와 만족도,
운동기술	심폐지구력, 눈-손 협응력, 신체활동량, 건강 체력, 소근육, 이동, 신체구성, 심폐조성, 심폐적성 및 지단백질,

5)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문헌분석 및 음악 활동집 12편을 제외한 실험연구와 조사연구를 통하여 연구가 수행된 64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별 분석은 대상학생이 속한 학교과정별, 즉 유치부((0~6세), 초등부(7~12세), 중학부(13~15세), 고등부(16~18세)와 학교과정이 함께 혼합된 경우도 분석하였다.

3. 신뢰도 및 자료처리

본 연구를 위해 2012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정신지체학생 음악과 관련된 문헌검색을 실시하였다. 문헌분석 틀과 기준은 특수교육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완성하였다.

본 연구는 정신지체학생 음악관련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검색된 총 418편의 논문 중 연구 목적에 부합되는 105편의 논문을 선정하였다. 연구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1명의 분석자를 추가하여 분석자간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분석자는 특수교육 박사학위 소지자로 경력 10년 이상의 현직 특수교사이며 분석 전 분석틀과 기준을 공유한 후 선정된 문헌 105편의 논문 중 10%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분석자 간 일치도를 산출하였다. 분석자간 신뢰도는 분석자간 일치한 수를 일치한 수와 불일치한 수의 합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계산한 결과 93.6%로 높게 나타났으며 불일치 항목 발생 시 협의하여 최종 일치된 결과를 입력하였다.

Ⅳ. 연구결과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정신지체학생 음악교육에 관련 학술지 및 학위논문 105편을 연도별로 연구주제, 교육과정 영역, 종속변인, 연구방법, 연구대상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주제별 연구동향

분석대상 논문을 주제별로 분석한 결과 사회적응 및 정서의 연구가 25편(23.8%), 인지·심리를 연구한 논문이 21편(20.0%),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을 연구한 논문과 언어·의사소통의 연구가 각각 16편(15.2%), 기타 논문이11편(10.5%), 신체적·건강 관련 연구가 8편(7.6%), 치료·재활 논문이 5편(4.8%), 학습관련 논문이 3편(2.9%)으로 나타났다. 연도별·주제별 연구동향은 <표 Ⅳ-1>에 제시하였다.

<표 Ⅳ-1> 연도별·주제별 연구동향

주제 / 연도	교육과정 교육방법	인지·심리	언어·의사소통	사회적응 및 정서	신체적·건강	학습	치료·재활	기타	계	백분율(%)
02	1	1	1	2	·	1	·	·	6	5.7
03	·	2	3	1	·	·	·	·	6	5.7
04	·	1	·	2	·	·	·	·	3	2.9
05	1	·	·	3	·	1	·	·	5	4.8
06	1	3	3	4	1	·	1	3	16	15.2
07	2	3	·	1	·	·	2	2	10	9.5
08	3	1	2	3	2	1	·	·	12	11.4
09	2	1	2	3	2	·	1	2	13	12.4
10	2	1	3	3	2	·	·	1	12	11.4
11	3	6	2	2	1	·	·	·	14	13.4
12	1	2	·	1	·	·	1	3	8	7.6
계	16	21	16	25	8	3	5	11	105	100
%	15.2	20.0	15.2	23.8	7.6	2.9	4.8	10.5	100	

<표 Ⅳ-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회 적응 및 정서가 25편(23.8%)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사회적응 및 정서, 인지·심리, 언어·의사소통,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의 연구는 2002년부터 꾸준하게 연구가 이루어져 넓게 분포된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학습과 치료·재활 연구의 수는 각각 3편과 5편으로 매우 미미하다. 음악치료와 재활관련 연구는 2006년부터 이루어지고 있으며 활발히 수행되고 있지는 않았다.

2. 연구방법별 연구 동향

연구방법은 연구자가 연구방법에 대해 기술한 내용을 우선시하여 분류하였으며, 기술이 생략된 논문은 연구문제와 연구결과 및 결론을 바탕으로 분류하였다.

연구논문의 연구방법별로 분석한 결과 <표 Ⅳ-2>와 같이 실험연구가 65편(62.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례연구 17편(16.3%), 기타연구 16편(15.3%)으로 나타났다.

실험연구는 집단실험연구가 51편(48.5%), 단일대상 실험연구가 15편(14.3%)으로 나타났다.

조사연구는 3편(2.9%), 문헌연구와 질적연구 그리고 양적·질적 병행연구는 각각 1편(1.0%)로 분석되었다.

연구방법별 분석 결과는 <표 Ⅳ-2>에 제시하였다.

<표 Ⅳ-2> 연도별·연구방법별 연구동향

연도	양적연구					질적 연구	문헌 연구	양적·질적 병행 연구	계	백분율 (%)
	실험연구		기술연구							
	단일 대상	집단	사례 연구	조사 연구	기타*					
02	1	1	1		1				4	3.8
03	2	2	3						7	6.7
04		3							3	2.9
05	1	4	1	1					7	6.7
06	2	3	6	1		1			13	12.4
07		4		1	3				8	7.6
08	1	9	1		3				14	13.3
09	1	7	3		3				14	13.3
10	2	4	1		3		1		11	10.5
11	3	8	1		1			1	14	13.3
12	2	6			2				10	9.5
계	15	51	17	3	16	1	1	1	105	100
%	14.3	48.5	16.1	2.9	15.2	1.0	1.0	1.0	100	

* 기타는 내용분석연구, 교육적시사연구, 음악 활동 모음집 등 포함

3. 교육과정 영역별 연구 동향

<표 Ⅳ-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신지체학생 음악교육 관련 실험연구의 교육과정 영역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은 2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포함한 복합 활동의 연구가 31편(56.1%)로 나타났으며, 가창활동이 11편(16.7%), 감상활동이 8편(12.1%), 연주활동이 7편(10.6%), 창작활동이 2편(3.0%), 기타가 1편(1.5%)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 영역별 연구 동향은 <표 Ⅳ-3>에 제시하였다.

<표 Ⅳ-3> 연도별·교육과정 영역별 연구동향

연도	가창	연주	창작	감상	복합*	기타*	계	%
2002	1				1		2	3.0
2003	2			1	1		4	6.1
2004					3		3	4.5
2005	1				4		5	7.6
2006				1	5		6	9.1
2007	1	1			2		4	6.1
2008	2	1		1	6		10	15.1
2009	1			3	4		8	12.1
2010		1	1		3		5	7.6
2011	3		1	1	6		11	16.7
2012		4		1	2	1	8	12.1
계	11	7	2	8	37	1	66	100
%	16.7	10.6	3.0	12.1	56.1	1.5	100	

* 복합은 네 가지 활동 영역 중 두 가지 이상의 활동이 포함된 경우
* 기타는 위 범주에 포함될 수 없는 변인

4. 종속변인별 연구 동향

분석논문의 종속변인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응 관련 연구가 17편(26.2%)이었으며 인지 관련연구가 16편(24.6%)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언어 관련연구가 13편(20.0%)이였고, 기타 관련연구가 8편(12.3%)이었고, 운동 관련연구가 7편(10.8%), 학업성취 관련 연구가 4편(6.1%)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 주제의 분석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종속변인별 분석 결과는 <표 Ⅳ-4>에 제시하였다.

<표 Ⅳ-4> 연도별·종속변인별 연구동향

연도	인지		언어		사회적응			운동기술	학업성취	계	%
	인지	기억 주의력	언어	의사 소통	사회적 기술	적응 행동	사회정서				
02	1								1	2	2.7
03		1	3							4	5.4
04		1			1		1			3	4.1
05					2		2		1	5	6.8
06	1	1	1			2		2		7	9.4
07	1	1	1			1	1		1	6	8.1
08		1	2		2	2		2	1	10	13.5
09		3	2		1			2		8	10.8
10	2	1	1	1		1	1			7	9.4
11		3	3			2		2	1	11	14.9
12		3	1		4	1	1		1	11	14.9
계	5	15	14	1	10	9	6	8	6	74*	100
%	6.8	20.3	18.9	1.3	13.5	12.2	8.1	10.8	8.1	100	

* 종속변인이 2개 이상인 경우 복수응답을 포함함.

5. 연구대상별 연구동향

연구대상이 없는 내용분석 연구논문과 음악 활동 모음 연구논문은 연구대상별 연구논문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연구논문의 연구대상별 분석 결과 초등부(7~12세)가 38편(43.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중등부(13~15세)가 21편(24.1%)으로 나타났다. 고등부(16~18세)가11편(12.6%), 혼합이 10편(11.5%), 유치부(0~6세)가 7편(8.1%)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이 혼합된 논문연구도 수가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대상별 분석 결과는 <표 Ⅳ-5>에 제시하였다.

<표 Ⅳ-5 >　　연도별·연구대상별 연구동향

연도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혼합	계	%
02		2			1	3	3.4
03	1	3	2	1		7	8.1
04		1	1		1	3	3.4
05	1	1	2	1	1	6	6.9
06	4	3	2	3		12	13.8
07	1	1	2	1	1	6	6.9
08		7	4	1		12	13.8
09		8	1	1	1	11	12.6
10		2	2		3	7	8.1
11		6	5		1	12	13.8
12		4		3	1	8	9.2
계	7	38	21	11	10	87	100
%	8.1	43.7	24.1	12.6	11.5	100	

Ⅴ. 논의

본 연구에서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10년간 정신지체학생 음악 관련 연구논문을 분석하여 연구의 흐름을 알아보고 향후 정신지체 음악교육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정신지체학생 음악관련 학술지와 학위논문 105편을 대상으로 연도별 연구주제, 교육과정 영역, 종속변인, 연구대상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연구주제별 연구동향

분석대상 논문들에 대하여 연구주제별로 분석한 결과 105편의 논문 중 사회적 응 및 정서연구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를 지녔다는 이유로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할 기회를 상실해서도 안 되며 사회에서도 분리되어서도 안 되는 다시 말해 최대한의 인권과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서 살 권리가 있다는 점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장애학생들이 사회에서 온전하게 수용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폭넓은 통합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세심한 교육적 배려가 없는 물리적인 통합교육은 교육적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많은 장애 학생들이 통합교육 환경에서 또래들과의 자연스러운 친구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등의 여러 가지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소현 외, 2009). 이러한 사회적 관계 형성의 어려움은 결국 학업 수행 능력까지도 방해하는 장벽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실제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고 과제와 관련된 사회적 기술들을 습득하게 했을 때 장애 아동의 사회적 수용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학업적인 성취도 높아진다는 사실이 많은 연구들을 통하여 입증 되고 있다(Cartledge & Milburn, 1986; Gresham, 1984; Zirpoli & Melloy, 2001). Salend(1987)에 의하면 음악은 사회성기술 습득에서 장애학생과 비 장애학생이 서로 교류하는 기회를 갖게 해 준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음악교육에서 장애학생과 비 장애학생이 손

을 잡고 율동을 하거나 같은 악기를 가지고 함께 연주하는 경험들은 장애학생과 비 장애학생 모두에게 상호 교류하는 기회를 갖게 함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협동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음악기술의 개별적 발달도 이끌어 낼 수 있다. 익숙한 노래를 함께 부르고 동일한 율동을 따라 함으로 장애학생은 자연스럽게 비 장애학생을 모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비 장애학생은 장애학생의 모델이 되면서 서로 협동심과 소속감을 느끼며 두 학생 모두 사회성기술이 향상될 수 있다(장혜성 외 3,2007).

라순자(2004), 전명옥(2005), 이선미(2005)의 선행연구에서도 사회적 상호작용 중심의 음악프로그램이 정신지체 학생의 사회성 기술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밝히며, 나아가 사회통합을 촉진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인지·심리 및 건강,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치료관련 연구도 2006년부터 시작되어 점차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수가 매우 미미하다. 음악교육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는 국내의 연구자들 중에서 치료 목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관심이 아직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음악은 의사소통 기술이 부족한 정신지체학생들에게 비언어적인 표현을 통해 느낌을 전달 할 수 있는 효과(현용혁, 2008)가 보고되고 있다. 또한 음악활동이 감정표현과 정서적 안정감 등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유자운, 2005)를 볼 때 향후 문제행동의 예방과 재활을 도모하는 활동으로서 음악치료분야의 연구도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별 연구동향

분석대상 논문들에 대하여 연도별연구방법별로 분석한 결과 실험연구, 사례연구, 기타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른 연구방법에 비해 실험연구가 2002년부터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음악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험연구의 경우 집단대상 실험연구가 단일대상 실험연구보다 3배 이상 많았는

데 이는 정신지체 학생들에 대한 음악 프로그램의 중재효과를 알아보는 연구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편으로는 대상의 표집에도 제한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단일대상연구가 급속하게 확산되기 시작하는 또 다른 이유는 단일대상연구가 현장에 기초한 연구를 수행하기 적합하며(Mccormick, 1992), 증거에 기초한 실제를 확인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Horner et al, 2003)이다.

또한 조사연구, 질적연구, 문헌연구 등의 연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헌연구는 교과서나 연구논문을 통하여 음악 프로그램개발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연구의 기본 골격이 되는 이론적 배경을 튼튼히 할 수 있으므로 향후 문헌연구를 통한 심층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교육과정 영역별 연구동향

중재연구에서 사용된 교육과정 영역 범주의 출현동향을 살펴본 결과 초기부터 꾸준히 발표된 것은 '악기연주', '노래 부르기' 등의 표현활동과 가창과 연주, 그리고 감상활동이 복합된 활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현활동은 분석논문 중 83% 이상인데 비해 감상활동은 12.1%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였다. 더욱이 창작활동관련 연구는 2002부터 현재까지 총 2편의 연구만 있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창작을 다룬 활동과 다른 활동을 합한 통합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창작활동의 독립적인 활동만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또한 통합 활동의 중요성과 또 실제로 그렇게 수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창작활동은 즉흥적이고 자발적으로 음악을 만드는 것으로 자기표현과 창조성을 위해 좋은 활동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언어 및 인지능력 등이 요구되고, 독창성을 기반으로 한 예술영역이기 때문에 정신지체학생에게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더욱이 정신지체 학생들은 음악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여 음악적 요소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보이고 있으며, 또 다른 음악을 학습하는데 부적절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장애특성과 수준에 적절한 창작활동을 통하여 음악을 학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창작활동 프로그램 개발연구는 계속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감상활동 역시 12.1%로 연구논문의 수가 적었다. 정신지체학생에게 있어 감상활동은 가창·연주·창작 등 모든 음악교육 영역에 골고루 영향을 주어 음악의 종합적인 기초를 이루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김희규 외 , 2011)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활동이라 보여 진다.

그러나 장혜성 외 (2007)에 의하면 음악을 들으면서 몸을 움직이거나 자신이 부른 노래나 악기연주를 녹음하여 다시 들어보게 하는 방법들을 사용하여 새로움과 흥미를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단순히 들려지는 음악을 듣는 것보다 인지기술 향상을 위해서 대조되는 음악을 들어보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빠르기가 '빠른 곡'과 '느린 곡', '리듬이 복잡한 곡'과 '단순한 곡' 등 서로 다른 음악을 들어보고 그 차이를 느껴보게 할 수 있다. 공유미(2003) 역시 감상활동 프로그램을 계속적인 반복학습을 통해 관심을 유도하게 하고, 여러 가지 동물 및 주변의 소리 등을 들려주는 방법으로 정신지체 유아의 신체 인식능력 발달과 신체 협응능력 발달, 그리고 표현능력 발달에 효과적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기본 교육과정의 음악과 내용 영역은 감상, 가창, 연주, 창작활동 영역이 독립적인 활동이 아니라 상호 관련성 있게 조직되어 있으며 4가지 활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활용상의 유의점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이에 충족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특수교육현실에서 선호도가 가장 낮은 감상활동 및 창작활동을 실시한다는 건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가만히 앉아서 들려지는 음악을 들어야 하는 수동적인 감상은 교사나 정신지체학생 모두에게 쉽지 않는 활동이다. 그러므로 현 음악교육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하다.

또한 지금의 정신지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들이 특수 음악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만큼 특수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수 음악교육의 방법을 교사들에게 보급하여 우선 교사의 자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족한 교사의 수를 늘리고 좀 더 개선된 특수 음악교육의 시설 속에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조현아, 2001).

4. 종속변인별 연구동향

종속변인을 분석한 결과 연구주제의 결과와 비슷하게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총 66편의 실험연구 중 17편의 연구가 사회적응임을 감안할 때 정신지체학생이 동료사회 및 지역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기대하는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여러 선행연구들(김양수, 2007; 황재찬, 2008)을 통하여 음악활동으로 인한 사회적응력 향상은 장애인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적 기술 및 자신의 감정을 잘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도 이해하는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언어 및 의사소통 관련 연구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정신지체학생은 언어와 의사소통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음악교육을 통하여 의사소통을 증진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말하는 사람에게 집중하여 얼굴표정이나 입 모양의 움직임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음악은 매력적인 소리자극을 제공함으로서 눈 마주침을 증가시키고 격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장혜성 외 2007). 또한 정신지체학생은 언어표현에 어려움을 보일 수 있지만 좋아하는 음악이 나올 때 몸을 흔드는 등의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느낌을 전달할 수 있다. 앞으로도 기존의 연구와 더불어 통합교육 환경에서의 사회적응 및 의사소통에 대한 실험연구를 통하여 현장에 있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지·주의력에 관한 연구도 16편(24.6%)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주의력에 관한 연구는 2003년부터 꾸준하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여광응과 박연옥(2002)의 연구에 의하면 MMCP(Manhattanville Music Curriculum Program: 맨하탄빌 음악 프로그램)에 근거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일반 아동과 유아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 정신지체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부족을 지적하며 MMCP에 근거한 음악활동이 정신지체아의 음악 동일성 과제 수행, 음악 유목화 과제수행, 음악 서열화 과제수행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였다.

한편, 기억과 주의력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이 주의집중력 신장에 관한 것이었다. 안혜경(2003), 이제혁(2006), 문수진(2006), 신은정(2007)의 연구에서 장애 특성상 여러 학생들을 관찰할 수 없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 시킬 수 없다는 점을 제언으로 남겼다는 점이 아쉽지만, 적어도 음악활동으로 인해 주의집중행동과 주의력 향상에 대한 결과가 긍정적이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또한 안혜경(2003)의 연구에 의하면 음악 활동 프로그램 중에 악기 활동이 주의집중 효과가 가장 크다는 결과를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다른 변인의 영향도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음악 활동의 긍정적 효과 역시 보고되고 있으므로 사회적응 뿐 아니라 인지 및 주의력 향상 등 다양한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5. 연구대상별 연구동향

분석대상 논문들에 대한 발표연도별·연구대상별 분석 결과 초등부(7~12세)에 대한 연구가 28편(43.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중등부(13~15세)에 대한 연구가 15편(23.4%) 발표되었다. 유치부(0-6세)의 연구는 6편(9.4%)으로 극히 낮은 비율을 보였다. 정신지체를 위한 중재는 조기 학습 이후의 학습을 위한 기초를 형성하며 발달과정에 나타나는 결정적인 시기와 주변 환경과 경험의 중요성, 그리고 조기 중재를 통해 장애로 인한 2,3차 문제 예방에 대한 중요성에 따라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개입한다는 점을 연구자들은 인식하여 향후 정신지체유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중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져야 한다.

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이 연구는 최근 10년간인 2002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학위논문 및 학술지에 게재된 정신지체학생 음악교육 관련 연구논문 중 선정기준에 적합한 105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발표연도에 따른 연구주제, 연구방법, 교육과정 영역, 종속변인, 연구대상별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정신지체학생 음악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지체학생 음악교육 연구논문을 주제별로 분석한 결과 사회적응 및 정서관련 연구, 인지·심리관련 연구,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과 관련된 연구, 언어·의사소통 순으로 많았고, 신체적·건강, 치료·재활, 학습관련 연구도 수행되고 있었다.

둘째, 연구방법에 대한 동향을 살펴본 결과 실험연구가 전체 연구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정신지체 학생들에 대한 음악 프로그램의 중재효과를 알아보는 연구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실험연구 및 질적연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하여 정신지체학생에 대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수교육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음악 프로그램개발의 기초가 될 뿐 아니라 연구의 기본 골격이 되는 이론적 배경을 튼튼히 할 수 있는 문헌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과정 영역이 대부분 복합 활동과 관련된 변인에 집중되어 있었다. 복합활동이란 가창, 연주, 창작, 감상 활동 중 2가지 이상의 활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진 활동을 말하는데 이는 복합 활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향후 교육현장에서 가창활동과 연주활동, 학생의 창작활동과 감상활동을 포함한 통합적인 음악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이고 다양한 실험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연구주제에서의 양상과 비슷하게 종속변인 또한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가 많았다. 이는 음악교육과 사회능력향상의 높은 연관성을 의미한다. 향후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의 관심과 학제간 공동연구를 통하여 정신지체학생을 위한 사회적응 관련 음악프로그램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연구대상은 초등학생의 연구가 전체 연구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음악 프로그램 특성상 대상에 대한 변화의 기대치를 반영하기도 하며, 학령기초기에는 많은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일 것이다.

2.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

이 연구의 결과를 보완하고 확장시킬 수 있는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국내 정신지체학생 음악교육관련 학술지와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제한하여 연구하였다. 따라서 정신지체 학생의 음악활동의 생활화를 도모하고, 교수방법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국외 정신지체학생 음악교육 관련 연구에 대한 동향도 파악하여, 국내 음악교육 연구의 흐름의 비교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방법별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실험연구의 중재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피지 못하였다. 추후 특수교육 현장적용을 위해서는 실험연구에 대한 상세한 분석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갈향임 (2007). **초등학교 정신지체 아동을 위한 음악수업 방안.**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고하나 (2009). **기악활동이 정신지체 학생의 사회정서행동과 인지능력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교육과학기술부 (2011).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2009). **특수학교 교육과정 해설(Ⅱ):** 기본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2007). **초·중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권순달 (2000). **교육연구의 이해.** 서울: 양서원.

권요한·김수진·김요섭·박중휘·이상훈·이순복·정은희·정진자·정희섭 (2010). **특수교육학개론.** 서울: 학지사.

권현진 (2008). **음악줄넘기활동이 비만정신지체아동의 신체활동량 및 건강 체력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관일 (1991). 정신지체아를 위한 조기 음악교육의 중요성. **특수교육연구, 18**, 25-45

김남순 (2005). **정신지체아동 교육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김동일, 김이내, 정소라, 김은향, 김희주, 이유리, 이기정, 박중규, 고은영 (2009). 한국 ADHD 연구 경향의 분석: 1999년부터 2008년까지(2009). **학습장애연구, 6**(2), 101-127.

김상미 (1995). **정신지체 아동을 위한 음악요법.**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영단 (2005). **ADHD 아동에 대한 국내 연구 동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영태·박은혜·이소연 (2003). **교육 및 임상현장 적용을 위한 단일대상연구.** 서울: 학지사.

김원경·조홍중·허승준·추연구·윤치연·박중휘·이필상·김일명·문장원·서은정·유은정·김자경·이근민·김미숙·김종인·이신동 (2008). **최신특수교육학.** 서울: 학지사.

김윤정 (2011).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환경중심 언어중재의 연구 동향 분석.** 공

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은경 (2005). 국내 자폐 교육 관련 연구의 동향 분석: 1996-2005년 특수교육 학술지 수록 연구를 중심으로. **특수교육학연구,** 41(1), 79-109.

김정권·여광응·이상춘·조인수 (2000). **정신지체아교육과 지도의 실제.** 서울: 양서원

김정수 (2001). **기악중심의 음악활동이 정신지체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정희 (2003). **노래를 이용한 음악활동이 정신지체아의 어휘력에 미치는 효과.**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현주 (2002). **음악치료활동이 정신지체아의 정서 및 행동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사례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희규, 김찬수, 김현자, 민경훈, 손상희, 송민경, 이종열, 정동영 (2011). **특수교육 음악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라순자 (2004). **음악활동이 정신지체학생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효과.** 대구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류효경 (2007). **사물놀이 음악활동이 정신지체 학생의 인지능력 및 사회정서행동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소현 (2012). 특수교육 음악치료 연구의 국내 동향 분석: 2002-2011년까지의 전문학술지를 중심으로. **특수교육연구,** 19(1), 99-117.

박재국·박명애·김진호 (2006). **최신특수교육.** 서울: 시그마프레스.

서한보미 (2011). **단일대상 연구를 중심으로 한 학습장애 아동의 읽기 중재 연구 동향 분석.**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성태제·시기자 (2011). **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송준만, 강경숙, 김미선, 김은주, 김정효, 김현진, 이경순, 이금진, 이정은, 정귀순 (2012). **지적장애아교육**. 학지사

안혜경 (2003). **음악치료 활동이 정신지체 청소년의 주의집중능력에 미치는 효과.**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은정 (2003). **음악활동이 정신지체학생의 감성지능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자운 (2005). **음악치료활동이 정신지체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효과.**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명노 (2005). **정신지체아를 위한 음악지도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원종례 · 주용수 (2008). 장애 유아를 위한 음악활동 중재 연구 동향 분석. **유아특수교육연구, 8**(1), 93-115.

이금옥 (2004). **학습장애아의 읽기 향상 관련 연구 동향 분석.**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선미 (2004). **음악활동이 정신지체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소현, 박은혜 (2009). **특수아동교육**. 학지사

임영옥 · 조광순 · 곽승철 (2005).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음악활동중심 중재 연구 현황 및 향후 방향. **언어치료연구, 14**(3), 197-227.

장혜성, 장혜원, 황은영, 김은영 (2007). **장애아 음악활동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전명옥 (2005). **통합적 음악활동이 정신지체학생의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정순 (2004).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이 발달장애아동의 감정표현에 미치는 효과. **언어치료연구, 13**(3), 53-74.

조현근 (2009). **유아특수교육 연구동향 분석 연구**: 1994~2007년 학술지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현아 (2001). **정신지체 장애아를 대상으로 한 특수 음악 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은혜 (2009). **정신지체 특수학교학생들의 음악교육을 위한 학습지도안 연구 - 초등부과정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허명임 (2001). **가창지도가 정신지체아의 언어능력 신장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허유성, 박윤, 장은미, 최은순, 양안숙, 김태강 (2010). 질적 지표에 의거한 최근 10년간 학습장애 집단 실험 연구 동향 분석 및 학습장애 연구에 주는 시사점 연구.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11**(1), 469-498.

현용혁 (2008). **가창활동이 정신지체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발표력에 미치는 영향.**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현은경 (2000). **정신지체 특수학교의 음악수업 실태와 담당교사의 교직 만족도.**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홍성윤 (2011). **자폐성 장애 음악치료의 연구동향과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Cartledge, G., & Milburn, J. F. (Eds.) (1986). *Teaching social skills to children: Innovative approaches (2nd ed.).* New York: Pergamon.

Gresham, F. M. (1984). Social skills and self-efficacy for exceptional children. *Exceptional Children, 51,* 253-261.

Horner, R. H., Carr, E. G., Halle, J., McGee, G,M Odom, S., & Wolery, M. (2003). The use of single subject research to identify evidence-based practice in special education. *Retrieved December,* 27, 2004.

McCormick, S. (1992). Single-subject experimental research: Rational, tenets, and basic designs. *Paper presented at the Annal Metting of the National Reading Conference(42nd, Aan Antonio, TX, December 2-5, 1992).* ERIC, No. ED354477.

Salend, S. J. (1987). Group-oriented behaviors management strategies. *Teaching Exceptional Children, 19*(1), 53-55.

Zirpoli, T. J., & Melloy, K. J. (2001). *Behavior management: Applications for teacher and parents* (3rd ed.). New York: Merrill/Macmillan.

부록

1) 강성미 (2003). 정신지체아동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노래 활동 사례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 갈향임 (2007). 초등학교 정신지체 아동을 위한 음악수업 방안.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 강현정 (2010). 정신지체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방안 연구 : 중학교 3학년 음악교과서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 강해주 (2002). 노래방 기기 활용 수업이 정신지체학생의 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 고이순 (2011). 동요노랫말 바꾸기 활동이 지적장애학생의 어휘력에 미치는 효과. 대구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 고하나 (2009). 기악활동이 정신지체 학생의 사회정서행동과 인지능력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 공유미 (2003). 체험적 음악감상 활동이 정신지체유아의 신체 표현능력에 미치는 효과. 대불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 곽은미 (2010). 지적장애영유아의 수학개념 발달을 위한 음악치료 활동에 대한 이론적 고찰. **음악치료교육연구, 7**(1), 1-17.

9) 곽현주 · 김군자 (2006). 정신지체아동의 과잉행동 개선을 위한 자유즉흥 음악치료 사례연구. **예술심리치료연구, 2**(1), 83-107.

10) 권지민 (2012). 지적 장애 아동을 위한 음아치료 프로그램. 서울장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1) 권현진·정진욱·양한나 (2008). 음악줄넘기 활동이 비만 지적장애아동의 신체활동량과 체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자연과학, 48**(3), 529-538.

12) 김경숙 (2004). 사물놀이 음악활동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정신지체아의 주의

집중력 신장 연구. 고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3) 김남화 (2012). 댄스스포츠가 정신지체아동의 사회성발달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4) 김동욱 (2012). 사물놀이 장단을 활용한 타악기 연주 활동이 지적 장애 학생의 주의집중에 미치는 효과: 북 연주 활동을 중심으로.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5) 김민경 (2007). 자일로폰 악기연주 활동이 정신지체 청소년의 주의집중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한국음악치료학회지, 9**(2), 32-50

16) 김성일 (2010). 음악줄넘기 활동이 정신지체 아동의 이동운동기술 및 신체구성에 미치는 영향.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7) 김소희 (2008). 타악기 중심 음악활동이 정신지체아동의 눈-손 협응력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8) 김숙미 (2011). ICT를 활용한 가창학습이 지적장애아의 단기기억력에 미치는 효과.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 김양수 (2007). 통합적 음악활동이 중학교 정신지체학생의 적응행동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 김여정 (2012). 달크로즈 음악치료활동이 지적장애아의 운동능력, 자지표현 및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효과.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21) 김영주 · 정광조 (2006). 가창활동이 정신지체아동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2**(2), 27-52

22) 김용록 (2011). 특수학교(중등) 모듬북 장단 지도 방안.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3) 김요한 (2011). 리듬악기활동이 정신지체 아동의 수업참여행동과 주의집중력에 미치는 영향.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4) 김은지 (2010). 노랫말을 이용한 음악활동이 지적장애학생의 표현 연어 향상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5) 김은혜 (2007). 유아교육기관의 음악교육활동 연구 및 실태조사: 장애아 통합

교육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6) 김은혜 (2011). 타악기 중심의 음악극이 지적장애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도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고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7) 김재숙 (2006). 정신지체 아동의 사회 · 정서적 발달에 관한 음악치료 사례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8) 김정희 (2003). 노래를 이용한 음악활동이 정신지체아의 어휘력에 미치는 효과.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9) 김지선 (2011). 지적장애아동의 주의력에 대한 음악치료 사례 연구: 피아노 연주중심으로. 한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0) 김지은 (2006). 자아개념 개선을 위한 정신지체아동의 음악치료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1) 김지혜 (2010). 정신지체 아동의 사회교류를 위한 음악활동 과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2) 김찬수 (2005). 感覺敎育을 통한 重度 精神遲滯 學生의 音樂 基礎槪念形成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3) 김창무 (2010). 난타가 지적장애아동의 눈-손 협응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4) 김하영 (2012). 음악 감상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정서 및 행동 변화에 미치는 영향: 지적장애아를 대상으로.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5) 김현주 (2002). 음악치료활동이 정신지체아의 정서 및 행동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사례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6) 김혜진 (2009). 음악을 청취하며 하는 운동이 지적장애학생의 신체조성, 심폐적성 및 지단백질에 미치는 영향.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7) 김희성 (2011). 정신지체 중학생의 음악수업 관찰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8) 라순자 (2004). 음악활동이 정신지체학생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효과. 대구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9) 류미정 (2008). 달크로즈 음악활동이 지적장애아의 주의집중과 자기 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0) 류효경 (2007). 사물놀이 음악활동이 정신지체 학생의 인지능력과 사회정서행동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1) 문수진 (2006). 음악놀이 프로그램이 정신지체아의 주의집중 신장에 미치는 효과.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2) 민윤정 (2005). 정신지체 청소년의 사회적 기술증진과 문제행동 향상을 위한 자유즉흥연주(free improvisation therapy) 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43) 박경순 (2009). 지적장애아동의 또래관계를 위한 노래 만들기 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4) 박이남·권주석 (2006). 음악 치료 프로그램의 적용이 고등부 정신지체학생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지적장애연구, 8**(3), 95-112.

45) 박현정 (2007). 정신지체 아동위한 음악치료 활동집.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6) 박현혜 (2011). 기악중심 음악활동이 정신지체아의 자아개념 및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7) 박혜은 (2002). 정신지체 특수학교의 예능교과서 분석과 음악교과 교육과정의 개선 방안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8) 배지혜 (2012). 특수학교 음악교육 교수·학습 지도안 개발: 지적장애 중·고등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49) 서한나 (2011). 광고음악을 활용한 오르프 음악활동이 정신지체 학생의 언어표현에 미치는 효과.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0) 손수근 (2009). 인지 발달론에 근거한 정신지체 초등학생 음악 지각 · 표현활동 지도 방안 - 특수학교 '음악1'을 중심으로 -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1) 신정은 (2007). 표현 중심 음악활동이 정신지체 아동의 주의력 결핍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2) 신현진 (2009). 악기연주와 동작활동을 통한 상지동작훈련프로그램이 정신지체 아동의 소근육 운동기술 향상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3) 안재홍 (2008). 정신지체 아동을 위한 효율적인 국악수업방안.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4) 안혜경 (2003). 음악치료 활동이 정신지체 청소년의 주의집중능력에 미치는 효과.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5) 양정숙 (2012). 장구장단치기 중재가 정신지체아동의 장구연주기능 및 역할수용능력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6) 양정희 (2009). 달크로즈 음악활동이 지적장애아의 주의집중과 자기 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7) 양지선 (2011). 통합교육을 받는 지적장애 중학생의 학교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음악놀이활동.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8) 여광응 · 박연옥 (2002). MMCP에 근거한 음악활동이 정신지체아의 음악 인지과제 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3**(1), 107-130.

59) 유광숙 · 최중옥 (2003). 음악치료교육활동이 다운증후군학생의 선택적 주의집중력에 미치는 효과. **특수아동교육연구, 5**(1), 153-170.

60) 유은정 (2003). 음악활동이 정신지체학생의 감성지능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1) 유자운 (2005). 음악치료활동이 정신지체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효과.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2) 윤명노 (2005). 정신지체아를 위한 음악지도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3) 윤미정 (2009). 음악치료가 정신지체아동에 미치는 영향. 관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4) 윤지영 (2011). 음악치료 교육을 통한 정신지체 학생의 주의집중력 연구 : 첼

로 연주중심으로.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5) 이경진 (2010). 음악활동이 지적장애아동의 정서능력에 미치는 효과. 대구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6) 이경화 (2008). 즉흥연주 활동이 정신지체학생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효과.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7) 이국희 (2008). 동요를 활용한 언어지도 프로그램이 정신지체아동의 언어 이해력 및 표현력에 미치는 효과. 진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8) 이미란 (2006). 음악의 리듬자극이 정신지체아동의 심폐지구력에 미치는 영향 : 예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9) 이미선 (2007). 정신지체아동의 주의집중력에 대한 음악치료 사례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0) 이선미 (2004). 음악활동이 정신지체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1) 이세정 (2008). 음악 놀이 활동이 정신지체아동의 자아개념 및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2) 이수연 (2011). 정신지체 학생의 음악개념 형성을 위한 기악 지도방안.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3) 이신애 (2002). 음악활동이 정신지체아의 공격성 행동 감소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4) 이연실 (2010). 스타카토식 가창지도가 지적장애 학생의 수용어휘와 표현어휘에 미치는 영향. 우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5) 이영혜 (2006). 그룹음악활동이 경증정신지체아동의 친사회적행동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6) 이우낭 · 김수진 (2006). 음악활동 프로그램이 정신지체 아동의 수용 및 표현 언어 발달에 미치는 효과. **진리논단, 12**, 491-512

77) 이주연 · 정광조 (2006). 오르프 음악치료활동이 정신지체 청소년의 인지능력 및 운동능력 향상에 미치는 사례연구. **예술심리치료연구, 2**(1),

50-82

78) 이제혁 (2006). 악기연주활동에서 어쿠스틱과 컴퓨터음악 반주 형태가 정신지체 청소년의 주의집중행동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9) 이하목 (2002). 가창훈련이 정신지체청소년의 가창능력향상에 미치는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0) 이현정 (2009). 동작그림카드를 활용한 음악활동이 초등학교 저학년 정신지체 학생의 동작모방에 미치는 효과.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1) 임유진 (2010). 음악치료가 지적장애청소년의 주의집중력에 미치는 영향: 오르프음악교수법에 근거하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2) 장광희 (2009). 생활관련 동요 프로그램이 지적장애 아동의 어휘력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3) 장진호 (2007). 음악활동 프로그램의 적용이 정신지체학생의 음악성 및 사회성발달에 미치는 효과. 고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4) 전명옥 (2005). 통합적 음악활동이 정신지체학생의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5) 정영주·김영태 (2008). 음악을 이용한 언어중재가 지적장애 아동의 상대어 개념 습득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 7(2), 139-159

86) 정유진 (2011). 음악줄넘기 운동프로그램이 지적장애 학생의 협응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7) 정윤철 (2006). 음악활동이 정신지체아동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8) 정인혜 (2011). 음악활동의 중재가 지적장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9) 정지심 (2007). 특수학교 기본교육과정에 따른 예능(음악) 교과서 분석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0) 조성미 (2007). 정신지체 아동의 음악치료 활동을 위한 활동곡집.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1) 조재일 (2006). 정신지체 특수학교 음악교육활동 교육과정 운영실태 분석.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2) 조주영 (2010). 지적장애 아동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음악활동 과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3) 진영기 · 권주석 (2006). 음악 표현활동이 정신지체학생의 부적응행동 변화에 미치는 효과. **발달장애연구, 10**(2), 43-58

94) 최란 (2008). 정신지체아를 위한 피아노 지도 방법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5) 최애나 · 오은주 (2009).음악치료가 경도정신지체아동의 감정어휘습득 및 감정표현에 미치는 효과. **예술심리치료연구, 5**(2), 75-99.

96) 최애나·김명현·최낙천 (2009). 음악치료가 지적장애 아동의 주의집중과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효과. **예술심리치료연구, 5**(3), 17-40.

97) 최윤정 (2012). 국악장단을 활용한 음악치료가 지적장애 청소년의 주의집중력에 미치는 효과. 순천향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8) 최은경 (2006). 가창지도가 정신지체아동의 어휘 이해력과 표현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고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9) 최은혜 (2009). 정신지체 특수학교학생들의 음악교육을 위한 학습지도안 연구 : 초등부과정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0) 최은희 (2009). 그룹활동이 지적장애아의 부적응행동 감소와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동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1) 최지현 (2008). 지적(知的)장애 학생을 위한 음악 교육 연구.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2) 최지혜(2010). 음악활동이 지적장애 중학생의 음악인지능력과 자기표현력에 미치는 효과.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3) 하지현 (2010). 가창활동이 정신지체아의 어휘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4) 황재찬 (2008). 사물놀이 합주활동이 정신지체 중학생의 부적응행동에 미치

는 영향.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5) 현용혁 (2008). 가창활동이 정신지체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발표력에 미치는 영향.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